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중단 촉구

군산시의회, 새만금 위기 극복 지자체 등 공동 대응 방안 마련 건의안 채택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9일 제2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위기 극복 지자체 등 공동 대응 방안 마련 및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선애 의원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선애 의원은 "얼마 전 파행으로 막을 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이후, 새만금이 일부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파카운 시선을 받고 있다"면서 "잼버리를 10조원 규모의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으며, 이는 전라북도 뿐 아니라 새만금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군산시에 매우 모욕적인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SOC 사업은 새만금 투자환경 개선 및 내부개발 촉진을 위한 것으로 잼버리 유치 시점보다 훨씬 이전인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돼 추진해 온 사업"이며 "새만금국제공항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지역마다 2건씩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사례에 포함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지역 정가와 행정에서는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 앞으로의 새만금 내부 개발과 국제공항 건설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이는 현실화 할 조짐이 보인다"며 "전라북도는 내년도 새만금 SOC 관련 사업에 8,400억 원의 국가 예산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이례적인 정도로 대규모로 삭감된 것으로 파악되고, 또한 심의를 거친 정부 예산안은 9월 초 국회로 제출되면 추가 삭감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또한 "여당은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내세워 새만금 SOC 예산을 타냈다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며 새만금 관련 예산 누수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이미 예고한 상태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에 큰 난항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고립·은둔 청년 지역사회 복귀 대책 마련하라"

박경태 군산시의원, 5분 발언

군산시의회 박경태 의원이 29일 제2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고립·은둔 청년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군산시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경태 의원

박경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신림동 공간 살인사건의 최윤중, 흥기 살인사건의 조선, 서현영 흥기 노동사건의 최원중, 과의 살인사건의 정유정 등 최근 발생한 흉악 범죄자들의 공통점은 사회와 단절된 '은둔형 외톨이'였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며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라 불리는 이들은 일정 기간 사회 활동을 하지 않고 타인과 접촉없이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지내는 사람을 뜻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특히 독립된 삶을 준비하고 생애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청년들이 방안에 갇혀 홀로 지내는 고립·은둔 청년 문제는 정책 의

제로 떠오르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청년인구의 3.1%였던 고립·은둔 청년은 2021년 5%로 크게 늘었고 2022년 전국에 약 6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고립·은둔의 우울, 부적응, 역기능적 가족 문제는 개인과 공동체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자살위험성을 17배까지 늘리며 실제 복지부의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보고서'에서 은둔 청년의 60%가 자살생각을 해봤다고 답했고 이들 부모들도 자책감, 재회기반 강제 입소 등으로 인한 상처와 자녀의 극단적 선택 장면 목격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여러 언론사에서도 은둔 청년 문제의 심각성과 정부차원의 조사 및 지원의 필요성을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다"며 "고립·은둔 청년은 새로운 복지 수요이자 취약계층이다"며 "청년기 고립은 고립중년·고립장년·고립노인으로 장기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청년 친화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추석명절 종이상품권 30만원까지 상향

군산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9월 한 달 동안 종이상품권 구매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한다.

군산사랑상품권 구매 통합한도 50만원인 동일하며, 종이상품권 10만원 한도를 3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한다.

시는 종이상품권은 모바일·카드 상품권보다 상대적으로 발행비용이 2배 정도 더 발생되며 발행 총한도를 늘리기 위해 부득이 종이상품권 발행을 축소하고 모바일·카드 상품권을 확대했다.

이에 주로 종이상품권 사용을 선호하는 시민들에게 9월 추석을 맞아 종이상품권을 한시적으로 상향 공급한다. 특히 재래시장 등에서 명절 장보기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농민 공익수당 지급... 공익적 가치 증진

군산시는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60만원씩 지원하는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을 최종확정하고,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 28일까지 농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결과 8,610명이 신청했으며, 자격미달자에 대해 제외통보 및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오는 9월 추석 전에 농민 공익수당 카드(선불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은 2년 이상 전라북도 내에 주소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영농규모가 1,000㎡ 이상이어야 한다.

양행민 농업축산과장은 "9월 추석 전 농민 공익수당 카드(선불카드)를 지급하여 최근 극한 호우로 피해를 받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고무줄 행정 중지... 모든 자료 투명 공개를"

한경봉 군산시의원, 5분 발언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29일 제2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의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행정은 고무줄인가!'라고 소개하고 군산시는 고무줄 행정을 중지하고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군산시에 촉구했다.



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은 "지난달 우리 군산은 60여 년 만에 평균 500mm에 가까운 가장 많은 집중호우가 쏟아졌다"며 "석치산에는 산사태가 발생, 반경 1km 거주 주민 전원 대피명령이 발동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최근 6월 30일 산사태 지역으로부터 428미터 거리에 위치한 송풍동 연립주택의 사업계획인 '주택건설사업 공동위원회 통합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며 "해당 토지 일대는 군산시 도시계획에 의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군산시의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개발행위가 경사도 12도 이하일 때 개발할 수 있으며, 임목 축적도가 우수하고 경사도가 15도 이상이라 개발행위가 안되는

지역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산시민의 휴식처인 월영호수 인근 자락이라 고도지구, 시가지 및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높이 제한 크기 제한 등 허가 조건이 까다롭고 공익적 목적이 아니면 개발을 불허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다"며 "난개발로 인한 산사태 피해방지 및 자연환경을 유지함으로 얻는 공익적 이해보다는 개발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는 말도 안되는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0년도와 2022년도에 두 번이나 부결 결정이 난 해당 토지가 어떻게 해서 다른 통합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통과한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발권자가 대체 누구일까 조건부 통과가 되었는지 어떤 강력한 외압이 가해지지 않았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민선 7기 동안 아파트 신축 30건이 남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타기 식의 심의 통과에 의구심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에 걸려있는 송풍동 월영 아파트를 비롯한 20개가 넘는 아파트와 빌라들은 고도제한과 시민들의 조망권 때문에 고층으로 건축할 수 없어 재건축이 어려운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리튬금속전지 한계 극복한 '신규 전해질' 개발

군산대 이경구 교수 연구팀, 세계 전기차 선도 가능성 확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사업 탄력

국립 군산대학교 화학과 이경구 교수 연구팀이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로 리튬금속전지를 상용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신규 전해질'을 개발했다.

현재 노트북, 휴대폰 등 전자제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리튬이온전지는 저장 용량이 작고 수명이 짧아 전기차 동차에는 사용하기에는 그 한계가 분명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저장용량이 10배 이상 커진 리튬금속전지가 개발돼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의 대안으로 주목받아왔다.

하지만 충전과 방전을 거듭할수록 리튬금속 표면이 나뭇가지 모양의 수지상결정(dendrite)이 형성되어 전지의 수명이 짧아지고 화재나 폭발 등에 취약한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이경구 교수 연구



팀은 설퍼이트(sulfite)계 용매를 포함하는 전해질을 이용하여 리튬금속전지의 한계를 극복하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번에 이 교수팀이 개발한 신규 전해질은 리튬금속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하여 리튬금속전지의 가장 큰 문제

점이었던 수지상결정 형성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기존 카보네이트 용매를 활용한 상용 전해질보다 높은 이온전도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수한 출력성능을 가지는 이차전지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농축산피해 재난지원 확대... 추석전 우선지급 추진

익산시가 집중호우 피해 농민들을 위한 재난지원 확대와 추석 전 지원금 우선 지급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지원을 상황 확대하고, 피해 농민에게 정부지원금이 신속히 지원되도록 정부와 전라북도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는 농산물 수확기이자 추석 대목

을 앞둔 농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시는 재난대책비 교부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등 소요시간을 단축해 지원금 지급과 피해지원 상황 확대에 따른 세부 작업 준비에 돌입한다.

우선 피해가 큰 농민들에게 생계비(특별위로금)를 기존 1개월분에서 작

물 재배특성,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5개월분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침수피해로 가장 재산 피해규모가 컸던 농가계에 대해서도 자연재난 최초로 잔존가치의 35%까지 피해규모를 지원해줄 계획이다.

주요 피해 농작물 단가가 인상돼 수확기를 앞둔 벼 보상 확대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